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로 경기 안산시 등 6곳 선정

- (대상) 경기 안산시, (최우수상) 강원 삼척시·전남 무안군,
(우수상) 부산 사하구·울산 동구·전남 해남군 각각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6곳을 선정하고 6월 16일(화) 시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대상에는 경기 안산시, 최우수상은 강원 삼척시와 전남 무안군, 우수상은 부산 사하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이 각각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우수 성과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평가 이후 집행률과 준공 실적이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관리 수준과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올해 평가에는 전국 18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집행 실적, 시설준공률, 사업관리 역량, 업무협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6곳의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기 안산시는 선감항과 풍도항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소득 공백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다목적 컨테이너와 임시 화장실 등 임시 편의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신속한 공사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사업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수상한 지자체에는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의 포상금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아울러 2027년 어촌뉴딜3.0 신규 사업지 선정 시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183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요 어촌을 경제·생활 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	책임자	과 장	홍근형 (051-773-6170)
		담당자	사무관	윤용식 (051-773-6171)



참고

경기 안산시 주요 우수사례

□ (어촌뉴딜300) 어민소득 공백기 및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자체 예산 마련

○ 선감어촌공유센터 현대화로 1년간 선감어촌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 불편(화장실, 샤워장 등 부재) 우려

☞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체 예산 4천8백만원을 편성하여 편의시설** 지원

* 공사 기간 중 어린이집, 학생 등이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관광객 수가 줄었으나, 일반인 관광객 방문은 지속[(24) 3,462명 → (25) 2,890명]^{공사기간}

** 이동식 화장실, 샤워장, 세면장 용도의 다목적 컨테이너



다목적 컨테이너 설치 전



다목적 컨테이너(화장실, 샤워장 등)

○ 탄도항 수산물직판장도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수산물 판매 불가로 어업인 수익 중단 우려

☞ 판매의 연속성을 위해 자체 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임시 판매시설 (몽골텐트 31개) 등을 설치, 공백없는 어업소득 유지

* 수산물직판장에 입주한 15개 업체 전수 몽골텐트로 이전하여 영업 계속



임시 판매시설 설치 전



임시 판매시설